

# “친구들 이야기 들어주며 행복 느껴요”

##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제10회 또래상담자 한마음축제 ... “이성문제 상담은 경험 없어 어려워요”

### 우수 또래상담자상 수상 신아람 학생(거진중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보니 이런 상도 받은 것 같아요.”

거진중고 3학년 신아람 학생(사진)이 지난달 22~23일 이틀간 열린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주최 제10회 또래상담자 한마음 축제에서 우수 또래상담자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태어나 5세때 부모를 따라 거진에 정착한 신아람 학생은 고 2학년때부터 학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상담자를 시작했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 풀어내주고 해결방법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통해 또래

친구의 고민이 해결이 되었을 때면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가장 어려울 때는 이성문제를 상담할 때라고 한다.

“이성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저도 이성에 관해선 잘 모르다보니 해결해주시를 못할 때가 많아 아쉬워요.”

그녀는 부모가 운영하는 거진읍 ‘정통춘천닭갈비식당’에서 부모일을 돕기도 하지만, 화진포 주변에 있는 화진포 막국수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용돈도 직접 벌어서 쓰고 있다.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부모의 금전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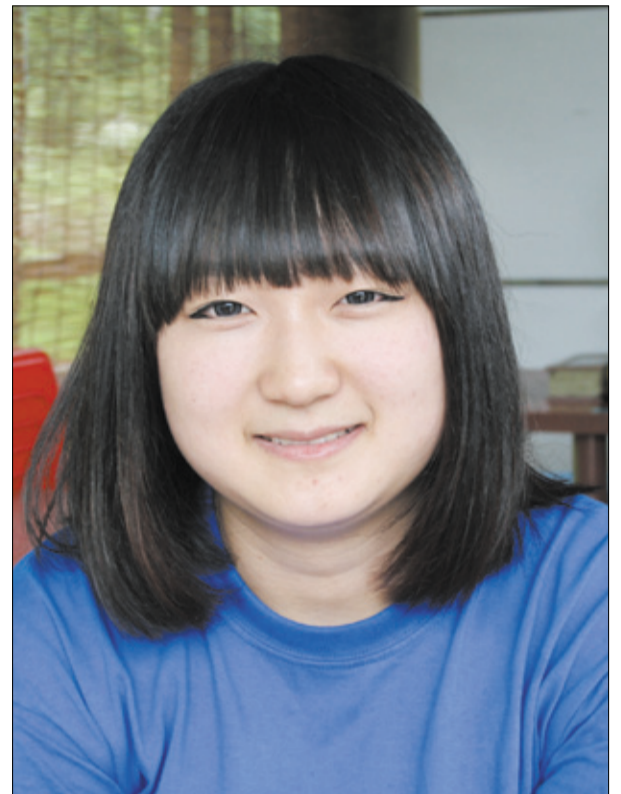
부모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는 요즘 세대에서 보기 드문 ‘효녀’다.

고 3인 신아람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 부사관에 지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졸업 후 군에 입대해 상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고민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는 소외계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신아람 학생은 “지금은 학생 신분으로 또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일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열심히 봉사 할 수 있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 ‘나를 살피고 세상을 섬기자’

## 고성로타리클럽 창립 ... 초대 김진 회장 취임

‘나를 살피고 세상을 섬기자’라는 슬로건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로타리클럽이 고성 지역에도 탄생했다.

국 제 로 타 리 3730지구 고성로타리클럽은 지난달 25일 오후 7시 썬밸리 리조트콘도 1



층 대연회장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12 고성로타리클럽 창립식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고성로타리클럽은 지난해 속초설악로타리클럽에서 창립을 스폰서로 결의한 후 올해 3월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발기인 대회에서 창립회원 1차회의를 통해 김진 군의원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김진 초대회장은 “봉사의 최일선에 서서 회원들의 유대와 결속을 다져가는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전세계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로타리클럽은 내가 아닌 우리가 모여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한데 모였다”며 “시작은 작고 부족함이 많을지라

도 내일의 힘찬 도약을 꿈꾸는 클럽으로 거듭나길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토성면 아야진 태생으로 동우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아야진초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우대학 총동창회장 및 고성군의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족은 부인 서정아씨(42세)와 1남1녀 자녀를 두고 있다.

고성로타리클럽은 현재 5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고성로타리클럽 집행부 및 분과별 위원장 명단이다.

- ◆회장 △김진 ◆부회장 △임기복 △함명준
- ◆총무 △유정호 ◆사찰 △양문석 △정태극
- ◆재무 △박승국 ◆회원분과 위원장 △김용자
- ◆홍보(공공이미지)분과 위원장 △이동균
- ◆클럽관리 위원장 △김만용 ◆봉사프로젝트 위원장 △제갈명찬
- ◆로타리재단 위원장 △손미자.

박승근 기자

### 심폐소생술로 여성 구한 김기남 토성의용소방대 반장

## “소방서에서 배운대로 했어요”

김기남 토성의용소방대 기술지원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4시 아야진 방파제 옆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은 여성을 CPR(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다.

김반장은 배를 몰고 육지로 들어오던 중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구조요청을 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마침 육지로부터 한명이 이 여성을 구조하러 왔으나 높은 파도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다. 김반장은 서둘러 로프를 던져 물에 빠진 여성을 배로 끌어 올렸다.

“여성을 배로 끌어 올렸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였어요. 제가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익힌 심폐소생술을 30여회 실시했습니다.”

김반장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잠시 후 여성은 구도를 하며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인해 생명을 잃을 뻔 했던 여성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다.

이후 김반장은 여성을 119구조대로 인계했으며, 119구조대에서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왔다고 한다.

김반장은 “속초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배운 심폐소생술을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여태까지의 삶에서 최고의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는 이같은 김반장의 공로를 인정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반장은 현재 토성의용소방대 기술지원반장과 119 수상구조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성군 연안지방연합회 사무국장, 아야진 지방연합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원광연 기자

